

1. 미래세대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시리즈3 - ③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는 부모)

참고: 나는 이번에 지난 33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본 교회의 주일 3부 예배를 빠지고 처음으로 다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바로 십자가교회로 간 것이다. 그 이유는 십자가교회의 담임을 하고 있는 강산 목사와의 대담 중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한 장소에서 20년이나 온 가족 예배(통합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공간에 모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연령의 성도들 눈높이에 맞추어 예배가 진행되고 그런 청중에게 설교한다는 것이 도저히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

래서 내 눈으로, 내 귀로 직접 참가하고 싶었다. 결론적으로 직접 십자가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보니 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리 오시면 좋겠다는 강산 목사의 말에 십자가교회에 주일 아침 9시 50분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놀란 것은 11시 예배 전에 10시부터 아이들 포함하여 성도의 70% 정도가 교육관에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중보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아이들도 셔서 목이 터져서 손을 들고 합심 기도에도 동참하는 모습에 눈물이 나왔다. 또한 예배에 지각하는 성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담임목사의 찬양 인도와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 성가대나 대표기도 같은 순서도 모두 생략하고 오직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였다. 온 성도가 일어나 부르는 영감 넘치는 찬양에 이어 PPT로 진행되는 설교는 누구나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진행되었으며 모두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도 감동적으로 선포되었다. 너무나 철저히 준비된 설교와 예배는 어느덧 1시간이 훌쩍 넘어 끝났고, 예배를 마쳐 아이들과 전 성도의 얼굴은 밝게 빛났다.

(대담 강병의 장로)

* 말씀으로 키운 자녀 미국 8개 유명대학 합격



Q.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A.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는 쉽게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더 급선부가 부모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부모님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대다수 아이의 신앙도 잘못되어 있고 부모님의 신앙이 바로서 있으면 그 아이의 신앙도 바로서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 탓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핍되어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부모가 결핍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부모님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대다수 부모가 자녀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 흔한 자녀 양육서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동물처럼 생물학적인 사육만 할 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제자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문제로 많은 부모님과 상담하는데, 자녀들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가 읽는 성경이 어디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기도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아이들의 신앙에 가장 큰 결핍과 디딤돌은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거의 대답을 못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절대다수의 부모가 아이들이 높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만을 바랄 뿐, 예배나 말씀, 기도나 소명에 대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잘못 같지만, 철저히 부모의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것이 모조리 위탁입니다. 놀이방에 위탁, 학원에 위탁, 교회에 위탁, 유튜브에 위탁, 세상에 위탁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부모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신앙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를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 자녀를 바로 세우기 전에 부모가 먼저 바로서야 한다

Q.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일단 크게 세 가지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부모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부터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모든 언행 심사에 그분에게 순복해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은혜와 능력이 안 되는 복음을 어떻게 자녀에게 전 수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신앙에 부가치한 것을 거절하고 가지치기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모님께서, 자신이 자녀에게 해 준 것 중에서 가장 잘못된 일이 바로 "스마트폰을 너무 일찍 사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인해 몸을 망치고 정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음란물과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고 부모님이 상상하는 이상의 악이 여과 없이 아이들의 눈과 귀, 영혼 속으로 독약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먼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나치다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은 지금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입니다. 우리 부부는 항상 "이것이 아이의 영혼에 유익한가?"를 점검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부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똑같이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의미를 발견하고 담아야 합니다. 복음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천 개의 쾌락이 한 개의 의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부터 직업의 선택까지 즐거움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생명이요 사명입니다.

*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자

Q.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자녀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시고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하듯이, 정기적으로 자녀의 영혼을 점검해 주십시오. 신앙과 인생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식사 시간이나 가정예배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듣고 나누십시오. 집에 와서 하루가 힘들었다고 인터넷 게임이나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밀도 있게 준비하십시오. 아이들은 정말 금방 굶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아이들에게 소리쳐 잔소리만 마시고 평상시에 아이들과 이야기함으로써 영혼의 상담자가 되십시오.

2. 자녀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도서들을 읽으십시오. 자기가 산 전자제품 하나를 위해서도 매뉴얼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영혼을 위해 아무런 책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 자녀를 고장 내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권의 자녀 양육 도서를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참고 도서는 맨 끝에 부록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3. 분명한 잘못을 단호하게 훈계하십시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따르는 것을 최고의 교육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듬고 고쳐야 할 존재입니다. 잔업을 읽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부모님도 속상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훈계하는데 부부가 협력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훈계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자녀는 자신에게 부조건 좋은 것을 사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바로잡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기도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의 온 육체와 영혼을 위해 4장으로 만민 사함과 기도와 고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가족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 자녀를 위한 교회와 공동체를 잘 선택하십시오. 자녀 양육은 절대대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고 싶다면 온 가족과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흐름을 타야 합니다. 자녀가 변화될 수 없는 공동체에서 나오십시오. 온 가족이 변화될 공동체를 찾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런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6. 함께 예배하십시오. 지금 현대 교회는 이상하게도 한 교회를 다니지만 부서별로 분리되어서 부모가 들은 것과 아이들이 들은 것이 다르고 그것을 적용하기도 힘들습니다.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너무 커서 그것이 힘들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가정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7. 모범이 되십시오.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모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적당히 좋은 부모가 되지 마시고 아이들의 인생을 감동 시킬 부모가 되십시오. 제발 연행일치를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말한 대로 사십시오. 아니 사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담배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앞에서 한 개비를 다 피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부서워서 꼼꼼하게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웠습니다. 가족들은 인상을 쓰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담배 피울 때 어떻게 너의 몸이 반응했고 가족들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기억해라. 그것이 좋으면 죽을 때까지 담배를 피우고 그것이 나쁜 것만 담배 피우지 말아라." 저는 학생 시절에 담배의 유혹이 몇 번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특별한 교훈 덕분에 지금까지 담배를 피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하얀 백지와 같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만납니다. 예배를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입니다. 부모님이 시작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위대한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부심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생명과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의 어깨 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올립니다!

◎ 참고, 자녀 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추천 도서들

- ① 테드 트림,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 ② 폴 트림, <안락한 부모는 없다>
- ③ 폴 트림, <위기의 시대, 기회의 시대>
- ④ 렐 브레들리 <성경적인 자녀 양육 지침서>

원로 · 명예목사회 제24회 정기총회

| 초대 의 글 |

예성 원로 · 명예 목사님들의 평강을 기원하며
제24회 정기총회에 정중히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원로 · 명예목사회 회장 이봉준 목사 외 임원 일동

회장

이 봉 준 목사
원동교회

부회장

고 용 복 목사
신월동교회

총무

강 석 창 목사
일신교회

서기

유 흥 옥 목사
신암교회

회계

윤 중 관 목사
개동교회

●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 오전 11시 ● 장 소: 총회본부 대예배실

※ 이 광고로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원로 · 명예목사회